

# 北傀는 南停 기회를 노린다

## 金鍊珠회장, 직원회 석상서 강조

김연주 기협회장은 지난 9월 6일 오전, 전체 직원회의 석상에서 북한 괴뢰의 남침을 적극 경계하고 우리의 결의를 다질하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훈시를 했다.

『북괴의 남침의도를 몇가지 조항을 들어 말하러 한다.

첫째, 오늘날 세계에는 공산주의 국가가 많이 있지만 북괴가 그중에서 가장 악랄한 집단이다. 북괴는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면 전쟁도 발을 하는 그런 집단이다.

6·25를 자기들이 도발하고도 우리가 북침을 했다고 악을 쓰는 집단이다.

둘째, 오만에 의한 남침을 조심해야만한다. 우리의 실상을 알지만 파소평가해서 혹시 남침하지 않나를 경계 해야한다.

세계, 저들의 체제문제이다. 상식 이전의 공산세계이므로 김일성주의의 유일사상으로 되어있고 특히 족벌체제의 암투가 심하므로 후계자문제에서 소련의 스탈린체제가 무너지면 불안, 1인독제가 무너지면 안된다는 생각으로 혼란이 일어나 남침 야욕을 일으키지 않나 하는점이다.

셋째, 경제적 파탄으로 인한 남침이다.

현재 의국에 대한 차관 연체가 20억 불이었고 자체해결이 어려움으로 돌파구를 남침으로 찾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다섯째, 시기를 찾아 남침을 노린다는 것이다. 자유당탈기 4·19직전이 위협했고, 민주당정권 시절 대학생의 판문점회담때, 65-68년까지 간첩을

국했다.

일본방문성과로서는 우선 내년중 건립할 예정으로 있는 기협 강원도지부점 사소 건립에 필요한 자금중 총공사비의 3분의 1을 일본 만국박람회기념 사업회에서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이다.

또한 일본기생충 예방회의 초청으로 금년내 간부 3명이 일본의 기생충사업

## 李于馥 사무총장 귀국

### 訪日成果등 多大

기협 이(李于馥) 사무총장이 지난 8월 17일부터 9월 5일까지 일본의 기생충예방사업 및 연구시찰을 마치고 귀

남파했고 무장공비등을 침투시켰을 때와 푸에블로호 사건, 삼척 술전사건 때 등이고 72년 4월의 김일성생일 때 서울에서 생일기념행사를 한다고 떠들썩 했었다.

그리고 금년의 美대통령선거, 8·18 사건 실패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혹시 남침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은 4대군사노선으로 1. 전 인민무장화. 2. 전군 간부화. 3. 전 국토 요새화. 4. 무장의 현대화등을 목표로 준비를 정비하고 있으며 먼저번에 발견된 땅굴장비에 투입된 금액만도 7500만불어치의 군사장비를 사들였다.

이상의 모든 일들은 그들이 무력남침과 적화 통일을 목표로 광분하고 있는 여건들이다.

우리전체국민과 기협 일직원일동은 이들의 야욕을 분쇄하고 초전박살의 의기와 용기로서 이들을 쳐부수고 영광된 대한민국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할 것이다.

연구차 7일간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며 내년 3월에는 겸사소장등 2명이 2개월간 일본 나고야 공중의학연구소에 연구실습차 방일할 예정등이다.

## 기생충 홍보관 개관식 성료

한국 기생충박멸협회 서울지부는 「기

생충홍보관」개관식을 혜화동 로타리에 자리한 등리관에서 갖고 기생충 홍보사업에 한층 더 박차를 가했다.

지난 9월 3일 오전 10시 30분, 보사부 성유운 보건국장등 내외귀빈 참석하에 성대한 개관식을 거행했는데 국민의례에 이어 李賢사무국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金恩禮지부장의 개식사, 유공자에 대한 감사장수여가 있었다.

이어 서울시 보건국장의 치사, 寄協 金鍊珠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는데 金회장은 격려사에서 「서울시지부가 이런 큰 사업을 완수한데 고마움을 표한다. 이번의 개관을 계기로 다른 각시도지부도 이런 홍보관을 만들어 전체국민에게 기생충의 위험과 대책을 널리 선전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적극 기여하자」는 요지의 격려사가 있었다.

다음으로 金鍊珠회장을 위시하여 박주병 結協회장등 의로계 명사등이 개관테이프를 끊음으로서 정식 개관되었는데 앞으로 기생충홍보관은 다각적이고도 치밀한 기획하에 기생충 홍보활동을 전개할 작정이다.



기생충홍보관 안내 입간판

## 감사장 수여자 명단

이날의 개관식에선 그간의 기생총관리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느라 국민보건의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인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서울특별시 보건예방과 황인섭
-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체육과 배인철
- △ 이화여자 고등학교 김금란
- △ 정신 여자중고등학교 한광선
- △ 단국중고등학교 이화영

## 일본 기생총 예방회

### 직원 10명 訪韓



사진설명=일본 기생총 예방회 직원 10명이 기협을 방문, 이우복사무총장으로부터 현황을 브리핑 받고 있다.

일본 기생총 예방회 직원 10명이 9월

## 제3차 A. P. C. O.

10월20일~24일까지,

### 일본 동경에서

아세아 기생총관계 최대회의인 아세아 기생총기구회의(A.P.C.O) 제3차 회의가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동경의 보건회관에서 개최된다.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등 6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는 이번회의는 한국에서 寄協의 金鍊珠회장을 위시하여 徐丙高부회장 家協의 강봉수사무총장, 윤석천지도부장 등이 대표로 참석케 된다.

그런데 이번회의의 주제는 「기생총관리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의 공동사업의 문젯결」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17일부터 23일까지 한국을 방문, 한일 양국간의 기생총사업 현황 및 연구점토를 결하여 상호교류를 돈독히 했다.

17일 김포공항 도착, 18일엔 기협본부를 예방하고 서울지부 홍보판을 시찰, 20일엔 경북지부등을 돌아 보았다.

21일 경주관광을 끝내고 22일엔 부산 경남지부등도 시찰, 23일 이한했는데 방한한 사람은 京極啓義씨의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